청렴 韓 남구

부산남구신문

구 정 목 표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
Change More Namgu
■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
■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조성
■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음력 8월 6일) 제260호

10월 20~22일 제21회 오륙도평화축제

오륙도 요트체험 등 27개 프로그램… 관내 음식점 가격 할인 행사도

부산의 대표 가을축제인 제21회 오륙도 평화축제가 오는 10월 20일(금)~22일(일) 사흘간 대연동 평화공원에서 열린다. 남구가 세계 유일의 유엔평화문화특구인 점을 축제 키워드로 활용해 자유, 평화, 화합이라는 3개의 주제 아래 총 27개의 프로그램이 남구 주민과 부산 시민의 발길을 기다린다.

축제는 9개의 무대행사, 6개 체험행사, 3개 전시행사, 9개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특설무대에서 이뤄지는 무대행사는 개·폐막식인 평화음악회와 평화토크콘서트, 20~30대 젊은층을 위한 재즈·힙합 같은 글로벌 게더링 공연 등이 펼쳐진다.

체험행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퍼포먼스가 올해 처음 마련된다. 또 유엔기념공원 등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주요 기관과 시설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하는 남구 평화투어도 준비된다.

전시행사에서 6·25 당시 부산에 주둔하며 대민구호활동을 펼친 스웨덴의료진들의 헌신과 활약을 사진으로 만나는 평화사진전이 준비된다.

부대행사로는 오륙도 요트체험 행사가 가장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21~22일 이틀간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에서 (주)삼주다이아몬드베이의 메가요트를 타고 이기대 앞바다를 거쳐 오륙도를 돌아본다. 또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축제 연계행사로 먹거리장터, 동아리공연, 청소년나눔벼룩시장, 남구 백일장, 건강관리체험 등이 열린다.

■ 제21회 오륙도평화축제 프로그램

무대행사	평화음악회, 청년 남구 콘서트, 오륙도평화가요제, 평화토크콘서트, 글로벌 게더링, 전통성년례, 평생학습동아리공연, 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 야외 영화 상영
체험행사	일제강제동원 추모 퍼포먼스, 남구 평화투어, 오륙도 사랑 걷기축제, 주민자치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 복지박람회
전시행사	평화사진전, 국화전시회, 시화전
부대행사	오륙도 요트체험, 특구홍보, 버스킹 공연, 먹거리존, 청소년나눔벼룩시장, 건강관리체험, 동아리 공연, 남구 백일장, 도시농업

※ FoMo CONCERT : 2017.10.21.(토) 15 : 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층

한편 축제 기간 평화공원과 문현동 곱창골목, 섶자리 내 음식점에서 축제 관람객들을 위해 한시적 가격 할인 행사를 벌인다. ☎607-4062

오륙도평화축제 프로그램 소개 및 가격 할인업소 명단 4면 게재

국화전시회·걷기축제도 참여하세요

제21회 오륙도평화축제에 맞춰 국화전시회와 제32회 오륙도사랑걷기축제가 함께 열린다.

국화전시회는 10월 20일부터 평화공원 중앙광장에서 한 달간 펼쳐진다. 각종 국화작품을 비롯해 대국, 소국, 초화 등 가을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긴다.

오륙도사랑걷기축제는 10월 21일(토) 13 : 00~17 : 00 개최된다. 오후 2시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출발해 이기대순환도로를 따라 백운포체육공원까지 약 6.5㎞를 걷는다. 코스 중간에 버스킹공연, 돌발 경품추첨 등의 깜짝 이벤트도 기다린다. 도착지인 백운포체육공원에서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한·중·일 지자체, 남구 생태환경사업에 갈채

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 우암동 도시숲 등 우수사례 소개

남구의 생태도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 한중일 국제회의에서 호평을 받았다.

남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해 이 같은 사례를 발표했다.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이 직접 사례 발표자로 나서 우암동 도시숲 조성사업, 이기대 자연마당 조성, 대연천 생태하천복원 등 남구의 생태도시 환경조성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석한 외국 자치단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얻었다.

또한 남구는 항만물류·금융 중심지 및 교육·문화·평화의 도시로서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문화회관, 백운포체육공원, UN기념공원 등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기대, 오륙도, 황령산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일 3국 대표기관 및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해 동북아 지방정부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3개국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시책 발굴 및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고 3개국에서 순회 개최한다.

10월 19일 남구 일자리박람회

40여 업체 참여… 현장 채용 면접 진행

2017년 남구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남구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부산고용센터, 부산여성회관, 노사발전재단, 부산상공회의소, (사)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이 후원하고 40여개 업체가 참여해 취업지원과 인재 채용의 기회를 가진다.

특히 (주)한탑 등 25개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 면접을 한다. 참여 희망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와 사진, 신분증 등을 지참해 참가하면 되고, 현장 면접 외에도 지문적성검사, 이력서 및 취업컨설팅,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일손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1,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07-4292

지난해 열린 2016 남구 일자리 박람회.

용호부두 친수공간으로 재개발된다

야영장, 공연장, 유스호스텔, 인도교 등 신설
부산항만공사 2019년 착공·2021년 완공 목표

공유수면을 포함해 3만7000여㎡에 달하는 용호부두 일원이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재개발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용호부두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해 시민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이달 초 지역언론을 통해 밝혔다.

항만공사가 구상하는 개발 방향은 용호부두 일대에 잔디광장, 야영장, 소규모 공연장을 세우고 유스호스텔 같은 저밀도 숙박시설을 유치한다. 이밖에 수변산책로, 카페, 해양레저 체험시설, 주차장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용호부두에서 이웃한 유람선 부두까지 연결해 바다 위를 산책할 수 있는 보행전용다리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호부두 재개발 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발안이 정해지면 내년 상반기 재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에 착공, 2021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항만공사는 용호어촌계가 사용하고 있는 어항 기능은 유지해 용호부두 재개발에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초라한 항일투사 묘소 저희라도 돌봐야죠"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묘소가 백운포 기슭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 우연히 알았습니다. 추석도 다가오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직원들과 함께 왔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낫질을 하던 농협생명 부산하나지점(BIFC 8층) 김지연 지점장은 "항일투사의 묘가 너무 초라해 깜짝 놀랐다"고 탄식했다.

지난 19일 용호동 천주교공동묘역에 있는 안성녀 여사 묘소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붐볐다. 농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과 남구청 직원, 남구의회 의원, 광복회 회원 그리고 남구에 사는 유족 등 10여 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참배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안 여사의 친손자이자 광복회 부산 남부연합지회장을 맡고 있는 권혁우(73·대연동 거주) 씨는 "할머니 돌아가신 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안 여사의 묘는 남구재활용선별장 입구(남구국민체육센터 뒤편)에서 250m 가량 떨어져 있다. 봉사자들의 낫질에 웃자란 잡초가 베어지자 작고 초라한 봉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 여사는 오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로 서거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이후 35년간 연해주와 만주 등지를 전전하다 광복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이후 6·25 발발로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1954년 4월 73세 일기로 사망했다. 처음 영도구 청학동에 묘를 세웠다가 1974년 이곳 용호동 천주교묘역으로 이장했다.

안성녀 여사 묘소의 벌초를 끝내고 자원봉사자들과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BIFC 내 보험설계사들 한가위 앞두고 벌초·참배
정부 서훈 못받아 백운포 천주교묘역 40년 넘게 방치
"가족 말고 이렇게 많은 분들 방문은 63년 만에 처음"

용당동에 위치한 '영웅안중근의사교육문화재단 부·울·경 연합회' 윤병하 회장은 봉사자들 앞에서 "안 여사님은 만주에서 독립군 의복을 만들고 군자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공식기록(수사기록이나 판결문 혹은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립현충원으로 유해를 옮기지 못하는 이유다.

4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어 오던 묘소는 참다못한 남구청이 지난해 자체 예산을 들여 시멘트 묘비를 없애고 항일 기록을 새긴 오석의 묘비와 상석을 새로 설치해 그나마 나아졌다. 남구는 향후 봉분도 정비할 예정이다.

권 지회장은 "언젠가 어느 기업인이 찾아와 할머니 묘소를 새로 단장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 현충원으로 모실 줄 알고 사양했다"며 "이런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될지 몰랐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남구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 사업'

지자체 평가 전국 최우수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평가

남구가 추진하는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 사업이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지자체 분야 전국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 사업은 남구의 랜드마크인 오륙도를 친근하게 활용한 소액 모금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전개하고 있다. 주민이나 단체, 기업 등을 통해 십시일반 모인 기금을 재원으로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개선과 심리치료를 하는 우리집이 살아났다'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복지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우수사업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남구 재정신속집행 3관왕

4·7월 이어 부산시 평가 대상… 7년간 상사업비 20억원

남구가 2017년 재정 신속집행 부산시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 4월과 7월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평가에 이어 부산시 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아 자치단체 중 전국 1위와 부산시 1위 모두를 차지했다. 6월말 기준으로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853억 원 대비 92.98%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로 남구는 부산시로부터 7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남구는 신속집행을 역점 과제로 선정하고 홍경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 점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런 노력으로 남구는 2011년 이후 매년 최우수 및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남구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부산시로부터 모두 19억 8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해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사업에 투자했다.

용호동 시사이드 관광지 〈3면〉

남구 찾은 스웨덴 참전용사 〈5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독감 무료접종

남구는 오는 26일부터 남구보건소와 관내 위탁기관(병·의원)을 통해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자(1,2종),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가 대상이다.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9월 26일부터, 만65세 이상~75세 미만은 10월 12일부터 병·의원에서 접종 받으면 된다. 그 외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관내 병·의원이나 남구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607-6460

<예방 접종 위탁기관 안내 2면>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 요일별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일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1, 10.8.	10.2, 10.9.	10.3.	10.4.(추석)	10.5.	10.6.	9.30, 10.7.
배출품목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종이, 종이팩, 비닐, 페트병, 요구르트병,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배출금지

■ 배출시간 : 해진 뒤부터~23 : 00까지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방환경(624-8282) : 대연1·4·5·6동, 용호1동 엘지메트로1단지, 문현동 ▷선도산업(626-8131) : 대연3동, 용호동(엘지메트로1단지 제외),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